

<http://dx.doi.org/10.17703/JCCT.2024.10.5.491>

JCCT 2024-9-59

## 노인의 여가만족과 인지기능의 관계: 사회적 관계망의 매개효과

### Effects of Leisure Satisfaction on Cognitive Function: Mediating Effect of Social Network of the Elderly

이성은\*

Lee Sungeun\*

**요약** 본 연구는 노인의 여가만족이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관계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사회조사 2023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65세 이상 노인 9,526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노인의 여가만족은 인지기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관계망은 노인의 인지기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인의 여가만족은 사회적 관계망을 매개로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의 여가만족이 높을수록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가 커지며 이는 노인의 인지기능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노인의 인지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해 여가활동이 고려될 수 있으며 사회적 관계를 확장시킬 수 있는 유형의 여가활동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요어** : 노인, 여가만족, 인지기능, 사회적 관계망, 매개효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leisure satisfaction on cognitive function and to examine mediating effect of social network in the relationship between leisure satisfaction and cognitive function of older adults. For this, this study utilized 2023 Social Survey data and 9,526 older adults aged over 65 years were analyzed. Study results showed that first, leisure satisfaction had positive effects on cognitive function of older adults. Second, social network had positive effects on cognitive function of older adults. Third, leisur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had effects on cognitive function mediated by social network. That is, older adults with higher level of leisure satisfaction had more number of social network leading to a higher level of cognitive function.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leisure activities can be considered in maintaining and improving cognitive function of older adults and there is a need to promote types of leisure activities which extend social network.

**Key words** : Elderly, Leisure Satisfaction, Cognitive Function, Social Network, Mediating Effect

#### I. 서론

노인의 여가활동은 길어진 생애주기의 후반부를 보다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인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 특히 노인의 경우 퇴직 이후 노동에서 배제됨으로 인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이 여가 시간이 될 수 있어 여가

\*정희원,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단독저자)  
접수일: 2024년 7월 25일, 수정완료일: 2024년 8월 23일  
게재확정일: 2024년 9월 1일

Received: July 25, 2024 / Revised: August 23, 2024

Accepted: September 1, 2024

\*Corresponding Author: lees@pusan.ac.kr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Pusan National Univ, Korea

활동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1]. 노인의 여가활동은 단순히 노동으로부터의 휴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노후의 고독이나 외로움을 해소하고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2].

노인의 여가가 노인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여러 연구를 통해 보고되고 있는데 노인의 여가만족은 심리적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죽음에 대한 불안감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3]. 또한 여가만족은 노인의 우울을 감소시키며 성공적 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4].

여가가 노후생활에 가지는 의미와 함께 노년기에 특정한 측면으로 사회적 관계망의 변화를 들 수 있는데 노년기에는 공식적 직업 활동 보다는 여가활동과 같은 비공식적 활동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노년기는 노화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쇠퇴를 경험하며 은퇴나 주변인들의 사망 등 부정적 경험을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가족 또는 친구, 지역사회 구성원 등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를 통해 문제 해결이나 정서적 균형 유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5]. 여가활동은 이러한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촉진시킴으로써 노후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한편 노인인구의 증가로 노년기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함께 건강한 인지기능의 유지 및 치매 예방이 노인 본인 뿐 아니라 가족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6]. 2023년 우리나라 치매 노인 수는 90만명을 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추정 치매 유병률은 약 10.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7]. 따라서 의료적 개입 뿐 아니라 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치매를 예방하고 인지적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관심과 탐색이 요구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가활동은 노후의 인지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는데 선행연구에 의하면 여가활동은 노인의 인지기능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8].

이와 같이 노년기 삶에 있어 여가활동과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 및 여가활동이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보고되고 있으나 여가만족이 어떠한 기제를 통해 노인의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선

행연구들의 한계를 보완하여 노인의 여가만족과 인지기능의 관계에서 사회적 관계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 1. 분석대상 및 자료

본 연구는 통계청에서 실시한 2023년도 사회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사회조사는 전국에 거주하는 만 13세 이상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로[9], 표본의 대표성 확보에 있어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2023년 사회조사 응답자 중 65세 이상 노인 9,526명을 추출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여가만족으로 평소 여가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을 활용하였다. 질문에 대한 응답은 매우 만족한다(1)~매우 불만족한다(5)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역코딩하여 분석하였으므로 점수가 높을수록 여가만족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매개변수인 사회적 관계망은 평소 교류하는 사람들의 수로 측정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평소에 대면, 전화, 인터넷 등으로 하루 평균 몇 명의 사람들과 교류하는 지 묻는 질문을 활용하였다. 질문은 가족 또는 친척 및 가족 또는 친척 이외의 사람을 모두 포함하며 응답한 인원 수를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인지기능은 기억하거나 집중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을 활용하였다. 질문에 대한 응답은 전혀 어렵지 않다(1)~전혀 할 수 없다(4)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역코딩 하여 분석하였으므로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기능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제변수는 연령, 성별, 교육수준, 지역, 혼인상태, 소득, 체력을 포함한다. 연령은 응답자의 만 연령을 사용하였으며, 성별은 남성(1), 여성(0)으로 설정하였다.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1)~대학교 졸업 이상(4)으로 측정되었다. 지역은 동부를 도시(1), 읍면부를 농촌(0)의 더미변수로 설정하였다. 혼인상태는 배우자 있

음(1), 기타(0)의 더미변수로 설정하였다. 소득은 100만원 미만(1)~800만원 이상(9)으로 측정되며 가구 월평균 총 소득을 의미한다. 체력은 걷거나 계단을 오르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는지를 질문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질문에 대한 응답은 전혀 어렵지 않다(1)~전혀 할 수 없다(4)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역코딩하여 분석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체력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 3. 분석방법

먼저 연구대상 노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의 전반적인 관계 파악을 위해 피어슨 상관계수를 통해 상관관계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목적인 노인의 여가만족과 인지기능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관계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또한 매개효과와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10]으로 검증하였다. 위의 분석은 SAS 9.4와 SPSS 27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었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Characteristics of study sample

변수		Mean(SD)	%
통제변수	연령	74.2(7.1)	
	성별	남성	44.4
		여성	55.6
	교육수준	2.0(1.1)	
	지역	도시	62.1
		농촌	37.9
	혼인상태	유배우자	64.3
		기타	35.7
소득	2.6(1.7)		
체력	3.3(0.8)		
독립변수	여가만족	3.0(0.9)	
매개변수	사회적 관계망	3.8(4.2)	
종속변수	인지기능	3.6(0.6)	

연구대상 노인의 평균 연령은 74.2세(sd=7.1)로 나타났다. 성별에 있어서는 남성이 4,231명으로 44.4%, 여성이 5,295명으로 55.6%를 차지하였다. 교육수준은 평균 2.0(sd=1.1)이었으며, 지역은 도시에 거주하는 노인이 5,918명으로 62.1%를 차지하였으며,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이 3,608명으로 37.9%를 차지하였다. 혼인상태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6,128명으로 64.3%, 기타가 3,398명으로 35.7%를 차지하였다. 소득은 평균 2.6(sd=1.7)이었으며, 체력은 평균 3.3(sd=.8)으로 나타났다.

한편 독립변수인 여가만족은 평균 3.0(sd=.9)이었으며, 매개변수인 사회적 관계망은 평균 3.8(sd=4.2), 종속변수인 인지기능은 평균 3.6(sd=.6)으로 나타났다.

### 2) 여가만족, 사회적 관계망, 인지기능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여가만족, 매개변수인 사회적 관계망, 종속변수인 인지기능 간 상관관계를 파악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었다.

표 2. 여가만족, 사회적 관계망, 인지기능의 상관관계  
 Table 2. Correlations among leisure satisfaction, social network, cognitive function

변수	여가만족	사회적 관계망	인지기능
여가만족	1		
사회적 관계망	.253***	1	
인지기능	.194***	.122***	1

\*\*\*p<.001

독립변수인 여가만족은 매개변수인 사회적 관계망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r=.253, p<.001$ ). 즉 여가만족 정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립변수인 여가만족은 종속변수인 인지기능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r=.194, p<.001$ ). 즉 여가만족 정도가 높을수록 인지기능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매개변수인 사회적 관계망은 종속변수인 인지기능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r=.122, p<.001$ ). 즉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가 클수록 인지기능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여가만족이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관계망의 매개효과

노인의 여가만족이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관계에서 사회적 관계망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3-표 5에 제시되었다.

매개효과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매개변수에 미치는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유의미해야 하고, 종속변수에 미치는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유의미해야 하며,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동시에 투입되었을 때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단독으로 투입되었을 때 보다 작아질 경우이다[11].

표 3. 여가만족이 사회적 관계망과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  
Table 3. Effects of leisure satisfaction on social network and cognitive function

		모델 1		모델 2	
		B	β	B	β
통제 변수	연령	.89357	.18954***	.0411	.06056***
	성별	-.03973	-.06647*	-.01063	-.12353*
	교육 수준	-.21784	-.02557***	-.02828	-.02306
	지역	.54295	.13672***	-.00081	-.00142**
	혼인 상태	-.34146	-.03912*	-.03544	-.0282
	소득	.23036	.02606***	-.00332	-.00261***
	체력	.23254	.09171	-.02569	-.07038***
독립 변수	여가 만족	.05625	.01027***	.40582	.51463**
R <sup>2</sup>		0.1121		.3319	
F		150.14		591.01	

\*p<.05, \*\*p<.01, \*\*\*p<.001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델 1의 경우 노인의 여가만족이 사회적 관계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여가만족은 사회적 관계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에 있어서는 연령, 성별, 교육수준, 지역, 혼인 상태, 소득이 사회적 관계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가 작아졌으며, 남성노인의 경우 여성노인에 비해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가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경우 도시에 거주하는 노인이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보다 사

회적 관계망의 크기가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 상태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에 있어서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2에서는 여가만족이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여가만족은 인지기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인지기능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에 있어서는 연령, 성별, 지역, 소득, 체력이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증가할수록 인지기능 수준이 낮아졌으며, 남성노인이 여성노인에 비해 인지기능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경우 도시 거주 노인이 농촌 거주 노인에 비해 인지기능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의 경우 소득이 증가할수록 인지기능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력의 경우 체력이 좋을수록 인지기능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3에서는 여가만족과 사회적 관계망 모두를 투입하여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었다.

표 4. 여가만족과 사회적 관계망이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  
Table 4. Effects of leisure satisfaction and social network on cognitive function

		모델 3	
		B	β
통제 변수	연령	.03646	.05372***
	성별	.0052	.03612*
	교육수준	-.01042	-.12113
	지역	-.02715	-.02214**
	혼인상태	-.00364	-.00636
	소득	-.03366	-.02679***
	체력	-.00452	-.00355***
독립 변수	여가만족	-.0269	-.0737***
매개 변수	사회적 관계망	.40552	.51426***
R <sup>2</sup>		.3331	
F		528.04***	

\*p<.05, \*\*p<.01, \*\*\*p<.001

먼저 여가만족은 인지기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여가만족이 높을수록 인지기능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개변수인 사회적 관계망 역시 인지기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데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가 클수록 인지기능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에 있어서는 연령, 성별, 지역, 소득, 체력이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증가할수록 인지기능 수준이 낮아졌으며, 남성노인이 여성노인에 비해 인지기능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있어서는 도시거주 노인이 농촌거주 노인에 비해 인지기능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의 경우 소득이 높아질수록 인지기능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력에 있어서는 체력이 좋을수록 인지기능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모델 2와 모델 3을 비교하면, 독립변수인 여가만족이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력이 모델 2보다 모델 3에서 더 작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매개변수인 사회적 관계망이 여가만족과 인지기능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11].

마지막으로 여가만족과 인지기능의 관계에서 사회적 관계망의 매개효과를 부트스트래핑을 이용하여 분석했으며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었다. 여가만족이 인지기능에 미치는 간접효과와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을 살펴본 결과 신뢰구간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사회적 관계망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을 확인하였다. 즉 여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가 커지며, 이는 노인의 인지기능 수준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 5. 여가만족이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관계망의 매개효과

Table 5. Effects of leisure satisfaction on cognitive function and mediating effect of social network

변수	Effect	Boost SE	Boot LLCI	Boot ULCI
여가만족-> 인지기능의 간접효과	.0046	.0011	.0025	.0069

#### IV.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여가만족과 인지기능의 관계에서 사회적 관계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사회적 관계망은 노인의 여가만족과 인지

기능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가 커지며,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가 클수록 인지기능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여가만족이 사회적 관계망의 확장을 통해 인지기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다양한 여가 유형 중 사회적 관계망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가활동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여가활동을 통해 형성된 사회적 네트워크는 사회자본의 축적에 도움이 되며 이러한 사회자본은 심리적, 생물학적 과정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12].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적 관계망을 보다 활용할 수 있는 여가활동이 노인의 인지기능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므로 사회적 접촉을 보다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여가 서비스 및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노년기에는 공식적 직업활동이 축소되고 직업과 연결된 사회적 관계망과의 접촉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회적 관계망의 전반적인 축소가 예상된다. 그러나 노후에 새로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과 같은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해 노인들이 사회적 관계망을 보다 쉽게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휴식이나 관람과 같은 활동은 인지기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문화예술 참여나 스포츠 참여, 학습활동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생산적 활동이 인지기능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 또한 중년 여성의 경우 동창회 등의 연고집단 활동이 인지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었는데 이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회가 제공됨으로 인해 인지기능 향상에 기여했을 가능성을 추론해볼 수 있다[8].

따라서 여가활동 및 사회적 관계 축진을 위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계획함에 있어 성별이나 연령층 등 노인의 개별적 특성에 따른 접근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여가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적 관계망의 확충을 저해하는 요인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TV 시청과 같이 혼자 하는 활동이 아닌 타인들과의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는 여가활동의 경우 비용에 대한 부담이 여가활동을 저해하는 요

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비용 경감에 대한 방안들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디지털 기기의 활용 역시 비대면 의사소통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노인의 사회적 관계의 유지와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13]. 따라서 디지털을 활용한 다양한 여가활동 방식에 대한 모색도 필요할 것이다.

## V. 결론

본 연구는 사회적 관계망이 노인의 여가만족과 인지 기능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함을 밝혔으며 연구의 결과 여가활동을 통해 사회적 접촉을 촉진시킴으로써 노인의 인지기능 저하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어떠한 유형의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이 사회적 관계망 확충과 관련이 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 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의 유형 및 사회적 관계망의 만족도와 같은 주관적 측면도 포함하여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References

- [1] E.Y. Chung, "Leisure Activities and Cognitive Function in Korean Older Adults,"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 40, No. 3, pp. 443-458, June 2020. DOI <https://doi.org/10.31888/JKGS.2020.40.3.443>
- [2] Y.S. Yoo, "The Effects of Leisure Activities Satisfaction on Successful Aging in the Elderly," *Journal of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Vol. 16, No. 2, pp. 217-225, February 2022. DOI <https://doi.org/10.21184/jkeia.2022.2.16.2.217>
- [3] S.J. Moon, S.H. Park,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Leisure Experiences, Leisure Satisfaction, Happiness and Death Anxiety of the Elderly People Tourism Research," *Tourism Research*, Vol. 43, No. 4, pp. 45-70, December 2018. DOI <https://doi.org/10.32780/ktidoi.2018.43.4.45>
- [4] O.J. Kang, J.S. Yun, "The Effects of Leisure Satisfaction on Successful aging through participation in the Lifelong Education Program for the Elderly: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Gerontology*, Vol. 5, No. 2, pp. 59-80, November 2019. DOI <https://doi.org/10.31748/KSEG.2019.5.2.59>
- [5] S.Y. Lee, "The Effects of Digital Literacy in the Elderly on Quality of Life and Mediating Effect of Social Network,"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 12, No. 6, pp. 307-322, December 2021. DOI <https://doi.org/10.22143/HSS.21.12.6.22>
- [6] J.Y. Kim, "Social Network Diversity and Cognitive Function in Late Life,"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Vol. 40, No. 4, pp. 1-24, December 2017.
- [7] National Institute of Dementia. 2023. [https://www.nid.or.kr/info/today\\_list\\_2023.aspx](https://www.nid.or.kr/info/today_list_2023.aspx).
- [8] J.N. Hwang, S.M. Kwon, "The Relation Between the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y and Cognitive Function among Middle-aged and Elderly Population,"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Vol. 29, No. 3, pp. 971-986, August 2009.
- [9] Korea Statistics, <https://www.k-stat.go.kr/metasvc/mseal00/statsdccta-popup?orgId=null&statsConfmNo=101018&kosisYn=Y>. 2023.
- [10] A. F. Hayes, "Beyond Baron and Kenny: Statistical Mediation Analysis in the New Millennium," *Communication Monographs*, Vol. 76, No. 4, pp. 408-420, December 2009. DOI <https://doi.org/10.1080/03637750903310360>
- [11] R. M. Baron, and D. A. Kenny, "The Moderator - 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1, No. 6, pp. 1173-1182, January 1986.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51.6.1173>
- [12] I.H. Lim, "The Effects of Elderly Cultural Capital and Social Capital on Life Satisfaction," *Northeast Asia Tourism Research*, Vol. 15, No. 1, pp. 129-164, February 2019.
- [13] H.J. Lee, H.J. Nam, "Correlates of the Use of Digital Devices, Social Support, and Successful Aging Among the Elderly,"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JCCT)*, Vol. 10, No. 3, pp. 405-411. May 2024. DOI <http://dx.doi.org/10.17703/JCCT.2024.10.3.405>